

배신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삿 02:18절)

사사기를 처음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책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의 등장과 왕정 체제 수립까지(주전1390-주전 1050년경) 약350년 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을 저버리고 타락해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멸망시키기로 약속한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습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점에서 사사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적 최악의 암울한 역사에 축복과 소망이라는 한 가닥의 희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희망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영적 능력을 입혀 주어 부흥의 도구로 쓰셨던 사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켜 주셨는데, 그들은 백성들을 관장하였으며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 죄의 씨를 남기지 말라!

사사기서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죄의 씨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완전히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원주민들인 이방 사람들의 우상숭배와 악함을 배우게 될까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완전정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각 지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 내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 두게 됩니다.

1장19절에서 마지막 절인 36절까지에는 그들이 그 땅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자손은 골짜기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고, 므낫세 자손도, 에브라임 자손도, 스블론 자손도, 아셀 자손도, 납달리 자손도, 단 자손도 거민 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이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삿2:2-3)

가나안의 이방민족들을 완전히 쫓아 내지 못함으로, 우상숭배자들인 그 이방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한 가시와 울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우상숭배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죄와 불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의사가 암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그냥 두고 수술을 끝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암덩어리를 다 제거하지 못하고 수술을 마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으로써 우리의 삶속에 죄의 씨를 남겨 두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100%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민족을 허용하고 타협을 받아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 동안에도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도 그들은 농사짓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을 해 옵니다. 그들이 농사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또 일꾼으로 섬기며 살 테니까 함께 살자고 협상을 해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곳의 농사풍습을 받아들여지게 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적인 방법이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물질적인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 최고라고 믿는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요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1%라도 죄의 씨앗이 남지 않도록, 100%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 배신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사기서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배신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방민족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은 우려했던 대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메소보담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기게 합니다. 팔 년 동안 식민지 살이를 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 주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사사 웃니엘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웃니엘이 사사로 지내는 40여년 동안 태평세월을 지냅니다.

웃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숭배를 합니다. 사사기 3장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왕 에글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에글론왕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사사 에훗을 세워서 에글론을 죽이게 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들은 에훗이 사사로 지내는 80년 동안 태평세월을 누립니다. 에훗 후에 삼갈도 사사로 큰 일을 합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야빈왕에게 그들을 파셨습니다. 야빈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여선지자인 드보라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태평세월을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셔서 한 동안 태평세월을 누리게 하는, 불순종과 심판과 구원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운 사사들이 드보라 이후에 바락,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임다, 임산, 엘론, 압돈, 삼손 등 모두 14명의 사사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심판과 구원이 360년 동안 반복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14명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격하고 감사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인자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 아니셨더라면 여기 있는 우리 역시 예전에 심판 받아 요절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성격, 못된 행실, 못된 죄악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죽었을 몸이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건재함을 감사합니다.

3.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사사기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민족을 남겨 둔 데서 비롯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는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말 그대로 혼란과 무정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21:25)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왕의 왕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은 훗날 이방사람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활동하던 왕정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왕이 되셔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과 평안과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의 치리 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룻1:1)

사사기 바로 뒤에 있는 룻기서의 시작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룻기서에는 사사시대에는 흉년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의미를 두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 할 때 왜 흉년이 옵니까? 바로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제 멋대로 살았기에 영적으로 흉년이 오고, 도덕적으로 흉년이 오고, 물질적으로도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산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 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들이 가뭄과 기아에 허덕이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들이십시오. 즉, 신본주의로 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본주의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또한 많습니다. 어떤 때는 명예와 체면이 나의 주인입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나의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와 오락이 자신의 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음식을 아주 적게 먹어야 한다는 '소식'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끼만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 끼만 먹어야 돼!" "한 끼만 먹어야 돼" 시

간만 나면 "한 끼만 먹어야 돼!" 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한끼만 먹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한끼만 먹는 것을 주장하는데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은 한끼 먹는 게 자신의 주인이 되 버린 것입니다.

누구를 품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음이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쓰러져 있는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꾼은 자기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몇 날 며칠 나무를 하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각종 약초를 캐다가 이 소년을 정성껏 치료하였습니다. 소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돌아간 뒤 얼마 지나서 왕궁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왕이 착한 나무꾼의 정성에 감사하여 사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원 한가지만 말하라고 합니다. 이 나무꾼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른 소원은 없고 일년에 한번씩만 내 집에 들려서 묶고 가 주세요!" 왕은 이 소박한 나무꾼에게 한번 더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일년에 한번씩 들려서 묶겠노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머물 집이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일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큰 대궐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크니 관리할 종들도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라에서 언제나 창고에 양식을 가득히 채워 놓습니다. 일년에 한번 모시는 일이지만 무엇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나라에서 꾸며 놓았습니다. 이 착한 나무꾼은 일년에 한번 왕을 모시기 위해 364일을 대궐에서 편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 보십시오. 이제 곧 놀라운 일들이 일어 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하루만 모셔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T.V 에서 선전광고를 하는데 참 재미있는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참으로 푸근하고 흐뭇함을 주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므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